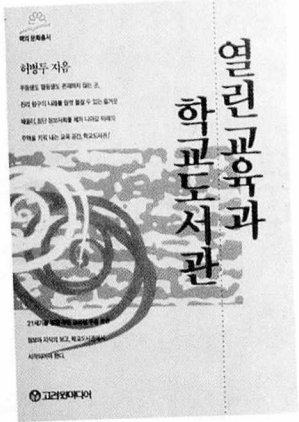


현직교사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

허병두 지음 「열린 교육과 학교도서관」



승문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도서관 운영을 담당해온 허병두씨가 학교도서관 운영의 이론과 실례를 소개한 「열린교육과 학교도서관」을 펴냈다. 전문사서가 없이 일반 교사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학교도서관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학교도서관 운영안을 담고 있어 이 책은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책은 2부로 나뉘어 썬어진 본문과 각종 교육 및 학교도서관 관련자료를 실은 3부의 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제1부 “뜻을 나누기 위하여”에는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필요성,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현실 등을 밝혀놓았다. 저자는 학교도서관을 “우등생도 열등생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 정의하면서, “첨단정보사회를 헤쳐나가야 하

는 미래의 주역을 키워내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교실은 진정 학교의 중심인가”를 반문하면서 “이제, 학교도서관을 살리자”는 주장이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제2부 “경험을 나누기 위하여”에서는 전문 사서 없이 학생들로 구성된 ‘도서관 자치 운영 조직’의 활동과 운영방식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사서 없는 학교도서관 운영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바, 그것이 학생씨클 도서관의 활약상이라는 것. 저자가 몸담고 있는 승문고 도서관 ‘책누리’의 활동상을 통해 학생들과 학교도서관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들이 제시된다. 부록에는 일반교사들도 학교도서관 운영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도서관 설치 및 운영 관련자료’, 승문고 도서관 회보인 「책누리」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한 설문조사 분석자료, 그밖에 「교육관련기관 및 전국 국·공립도서관 안내」 등 귀중한 자료들이 수록돼 있다.

학교도서관을 살리기 위해 저자 스스로 연구하고 궁리한 도서관 운영 이론과 실천 방안을 소개한 이 책은 교육개혁의 열기가 일기 시작하는 요즘,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21세기 교육개혁론”이란 평도 듣고 있다. 저자 서문중 “학교도서관이 배제된 학교교육, 교실만이 강조되는 학교교육이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구절은 이 책의 문제의식이 21세기 교육론에 맞닿아 있음을 잘 말해준다.

고려원미디어 / A5신 / 334면 / 6500원

작품 및 신상명세 망라한 문학인 총목록

원장문화재단 펴냄 「문인 인명사전」



지난 87년에 「문학인 인명록」을 펴낸 바 있는 원장문화재단(이사장 원종성, 동양에레베이터 대표이사 겸 「월간 에세이」 발행인)에서 “비매품으로 만든 문학인 총목록”인 「문인 인명사전」을 펴냈다. 2718명의 문인의 작품연보와 신상명세, 그리고 연락처를 망라하고 있어 문인들끼리의 교류를 넓히고 또 원고청탁 등 문인들과 접촉해야 하는 직종의 종사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각 수록인물들에 대한 소개는, 미당 서정주의 경우, 원편에 턱을 피고 짝은 ‘증명사진’이 있고 그 오른쪽에 그의 이력이 열거돼 있다. “생 : 1915.5.18, 장 : 시, 데 : 동아일보 신춘문예(36), 작 : 한국의 현대시·신문학원론·떠돌이의 시·조선민들레꽃의 노래·안잊히는 일들·가사시집 노래, 역 : 만해 한용운 한시선, 학 : 불교전문, 경 : 시인부락 주간·예술

원회원·현대시인협회장·불교문학가협회장·한국문인협회 이사장·한국문인협회 명예회장·범세계한국예술인회의이사장, 상 : 대한민국의학·예술원상·5.16문학상, 주 :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71-11(584-5214)”.

원장문화재단측은 이 인명사전을 발행한 목적을 “언론매체나 출판매체 등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인들을 필자로 선별하는 데 이용되도록 만들어졌다”며 “그리하여 유능한 중견작가, 촉망받는 신인작가들이 더 많은 발표기회를 갖도록 도움을 주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발간사에 적어놓았다. 이어서 “문인들의 활동범위를 넓히고 작품활동의 극대화를 꾀하는 데 일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월간지나 사보에서 원고청탁을 할 때도 아주 편리하게 필자와 연결시켜주며 필자의 즉각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이 사전의 활용범위를 밝혀놓았다.

한편 이 사전을 발간하기까지 여러 문인들의 게으름 때문에 작업속도가 더뎠다고 편집실무자는 전언한다. 설문지가 든 반송우편물을 두세 차례 발송했지만 회신된 것은 1200여통에 불과, 나머지 1500여명 문인들에 관한 자료를 구하는 데 애로가 많았다는 것. 특히 사진을 보내지 않는 ‘비협조’ 문인도 많았다고 한다. 각종 문예지의 연말 권말부록의 문인주소록 등을 참조했지만,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도 허다했고, 자택전화번호인 경우는 한밤중에야 통화가 이루어지는 등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후일담 또한 이 사전에 들인 재단과 편집진 측의 정성을 돋보이게 한다.

원장문화재단 / A5변형 / 314면 / 비매품

열음꽃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연구소에서 벌어지는 엽기적인 연쇄살인사건



이웅범 장편 추리소설
당신의 사고력을 가늠케 하는 소설
죽음과 영혼, 신과 인간과의
교감 등 문화, 정신, 역사를
넘나드는 작가의 해박한 지적
능력과 특유의 추리기법은
독자로 하여금 지적 충만감과
함께 묘한 전율을 느끼게 한다.
값 : 5,000원

보물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비밀,
세계전복의 음모!



클라리브커슬러 작 오성환 역
숨통을 조여오는 흥분과 긴장—
이것이 스릴러다!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비밀을 담은 난파선 한 척이 그리란드의 얼어붙은 바다 밑에서 발견된다. 세계질서를 바꿔놓을 엄청난 보물의 존재를 알리는 단서의 함께—보물을 추적하는 주인공과 암살자 사이에 벌어지는 숨막히는 대결, 시시각각 다가오는 테러의 공포!
*클라리브커슬러의 1988년작, 국제적인 난파선 탐사사건도 한 그라디인 할 수 있는 이색적 스릴러—어름머저 전율에 떠나다!
정가 : 5,500(상하 각권)

소유

올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을 능가하는
치밀한 구성력과 지적 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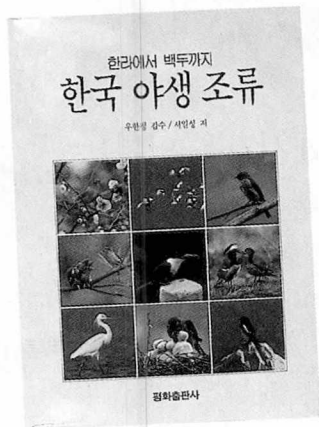


윤 회 기 역
영국 최고 문학상 “부커(Booker)상” 수상작
빅토리아 시대의 천재 시인 랜돌프 애쉬. 그리고
그와 함께 시와 사랑을 나누었던 여류시인 크리스토퍼
라모트... 한 쌍의 젊은 학자들이 이 둘의 삶의
궤적을 추적해 들어가면서 지금껏 문학사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 바이어트’는 ‘스틸달’과 ‘조이스’에 비견할
만한 작가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죽었고 그녀는 살아있다는 것 뿐이다
—LA 타임즈 북 리뷰紙—
정가 : 5,500(상하 각권)

동아출판사 ☎861-4818

사진작가가 만든 한국의 조류생태도감

서일성 펴냄 「한국 야생 조류」



울음소리가 고양이 소리와 흡사하다 하여 꿩이갈매기, 자기과사 행위로 부리로 나무를 쪼는 소리가 따발총소리로 들리는 까막딱다구리, 일반인에게 산까치로 알려진 어치, 혀끝이 붓모양으로 털이 있어 꿀을 먹기에 편리한 동박새, 오리과의 새 중에서 가장 예쁜 원앙, 가장 멋진 꼬리를 가진 삼광조, 등지를 짓지 않고 남의 새둥지에 알을 낳아놓고 위탁하는 삿꾸기, 머리에 추장의 깃털장식 같은 긴 우관을 갖고 있는 후루티...

공해와 환경파괴의 정도가 심각한 이 시대에 그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상쾌해지는 야생 조류의 사진집이 출간됐다. 중견 사진작가 서일성씨의 작품집 「한국 야생 조류」가 그것으로 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110여점의 작품이 수록됐다. 자연과 오묘한 조화를 이루며 사는 '원강 잡새'들의 모습을 생생하고도

선명한 색감으로 전해준다.

이 조류생태도감은 우선 우리나라에 사는 새들의 형태·번식·식성·분포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하고 있어 새에 대한 상식의 폭을 넓혀준다. 이 점은 지난 74년 우리나라 최초의 조류생태도감인 원병오 박사의 「한국 천연기념물(조류편)」 이래 출간된 여러 책들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기존의 조류생태도감은 새에 관한 한 박사이지만 사진에 관한 한 아마추어들에 의해 만들어졌음에 비해, 이 책은 사진작가가 만든 도감이라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교양의 측면과 아울러 감상의 즐거움까지 주는 작품집인 셈이다. 저자는 "조류도감의 형식보다는 자연 속에서 인간과 더불어 조화롭게 사는 새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해 보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말한다. "마치 박제를 촬영한 것 같은" 생경스럽기 짝이 없는 새 사진 대신, 페이지를 넘기면 화다닥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 '野生의 새'를 촬영했다는 점이 돋보인다는 평을 듣는다.

저자는 지난 89년 "한국의 새 사진 개인전"을 개최한 적이 있으며, 현재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 한국자유사진기초협회 회장, 한국조류보호협회 자문위원 등의 공식직함을 갖고 있다. 그는 머리말에서 새 사진을 찍게 된 것을 "운명"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운명의 안내와 사진장이의 오기로써 그 힘들다는 새 사진 촬영의 길로 나서게 되었다고 전한다.

특히 이 책자의 印紙란에는 "수익금의 일부는 조류보호기금으로 사용됩니다"란 문장이 적시돼 있어 다시 한번 상쾌함을 더해준다. 평화출판사/B5/168면/22000원

비로소 온전히 소개되는 러시아 혁명시인

열린책들 펴냄 「마야코프스끼 전집」



러시아의 대표적 혁명시인인 「마야코프스끼 전집」(전3권)이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번역출간되었다. 역자는 러시아 시를 전공한 석영중 교수(고려대 노문과)와 러시아 희곡 전공의 김규중 교수(경북대 노문과)이며, 모스크바 뿌라브다 출판사版 전 12권의 전집을 번역대본으로 삼았다. 이 「마야코프스끼 전집」은 그가 남긴 시편, 희곡, 시나리오, 평론, 강연기록, 각종 선전문구 등 다방면의 '작품'들 중, 러시아문학사에서 특히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들을 수록했다.

제1권 「나는 사랑한다」는 시인 자신의 출생에서부터 성장과정을 소재로 쓴 연작 「나 자신」을 필두로, 평생동안 사랑한 여인 릴리 브릭에게 바치는 노래 등 초기의 단시들로 묶여 있다. 세 편의 장시와 산문으로 구성된 제2권 「좋아!」에서 마야코프스끼는 사회주의혁명

에 대한 열렬한 옹호자로 나타나며, 표제시 「좋아!」에서는 '해방된 민중'들이 혁명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청춘의 땅"을 건설해나가는 모습을 역동적인 필치로 형상화하고 있다. 혁명의 兵丁시인답게 그는 그의 詩論에서 혁명에 복무하는 시가 생산되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제3권 「미스제리아 부프」는 자신의 삶을 비극으로 형상화한 「블라지미르 마야코프스끼-비극」의 다섯편의 짧은 선동극과 「미스제리아 부프」 「빈대」 「목욕탕」 등 대표적인 네 편의 장막희곡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각 권의 말미에는 마야코프스끼의 「연보」 「마야코프스끼의 삶과 죽음과 시」 「마야코프스끼의 희곡 세계」 등 역자들이 쓴 상세한 해설이 첨부돼 그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다.

1893년 그루지야에서 산림관의 아들로 태어난 마야코프스끼는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학사적으로도 시의 형식과 내용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20세기 소비에트의 중요한 시인으로 평가돼 왔다. "큐보 미래주의"를 표방한 그는 기존의 모든 사조와 표현을 거부하여 고의로 압운을 무시하고 형식과 의미를 파괴·왜곡하는 등,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언어로 혁명과 사회주의적 이상과 사랑을 격렬하게 노래했다. 혁명에 적극 동참했지만, 혁명 이후 관료주의화되어가는 조국의 모습에 환멸을 느껴 혁명정부를 배반하는 대신 권총자살로써 생을 마감했다.

열린책들/A5신/각 420면 내외/6000~8000원

“바로 이런 매체를 기다렸다”

한결같이 이렇게 격려해주시는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출판정보』는 더욱 효율적으로 정보를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편집체제를 더욱 개선하여 각각 80쪽 내외의 매체정보 2권, 해외 기획정보 1권 등 매주 3권을 2번에 걸쳐 발간합니다. 책을 기획하고 만들기 전에, 책을 팔거나 사보기 전에 먼저 『출판정보』를 찾아주십시오!

- 매체정보: 전국 60여개 일간지와 주요 주간지의 출판기사 스크랩
- 특집(해외/기획)정보: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최신 해외출판정보, 신간·베스트셀러·광고특집, 발굴자료, 기획자료 수록

회비: ●3개월 100,000원 ●6개월 180,000원 ●1년 300,000원

광고를 보시고 연락 주시면 샘플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14-2 동아빌딩 5층 전화/02)271-0442-3 팩스/277-7301

주2회 3권

출판정보